23대 대표 기조 연설문

고려대지부 22.5기 정주호

안녕하십니까? 23대 ALSA Korea 대표에 출마한 ALSA 22.5기 고려대지부 정주호입니다.

ALSA Korea 회원으로서 활동한 지난 2학기 동안, ALSA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다양한 행사 및 모임에서 다른 회원 분들과 좋은 추억을 쌓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AIMCC 대회의 준비팀으로서 22대 임원진 분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ALSA에 대한 책임감과 사랑으로 늘 ALSA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값진 경험을 통해, 제가 ALSA를 통해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저 또한 ALSA에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아래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과 이를 이루기 위한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하나, 대면 행사의 활성화

지난 1년간 코로나의 영향으로 대면 모임의 제약이 생기면서 ALSA의 다양한 행사에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대면과 대면을 병행하기도 하였지만, 불가피한 상황적 제약으로 임원진 분들은 물론이고 일반 회원 분들도 상당한 아쉬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코로나 이전의 활발했던 대면 행사들을 다시 철저하게 준비함으로써 ALSA의 활발한 분위기가 다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 국제 행사의 활성화

ALSA가 아시아법학생연합단체인 만큼, 코로나 유행 이전에는 다양한 국제연합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랬기에 국제행사에 대한 기대를 안고 ALSA 활동을 시작하신 회원 분들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영향으로 국제 행사가 거의 열리지 않고 열리더라도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기에, 저뿐 아니라 ALSA 회원 분들의 아쉬움이 크셨을 것입니다. 지난 22대 대표님께서 국제행사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면서 ALSA가 AIMCC 대회의 주최를 맡는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저 또한 국제 행사의 재활성화를 위해 이곳 저곳 발로 뛰며 노력하겠습니다. AIMCC 준비팀으로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ALSA의 발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셋, ALSA의 대외 영향력

ALSA Korea의 구성원이었던 것 자체가 하나의 큰 스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LSA의 대부분의 행사에서 최선을 다해 우수한 성과를 내야 ALSA를 수료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노력과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ALSA의 대외 영향력을 높임으로써 ALSA 활동이 회원 분들에게 큰 의미로 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공약에서 국제 행사의 활성화를 약속했던 점과 더불어, ALSA Korea의 영역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장시키면서 ALSA의 위상을 높이고, ALSA의 일원으로서 활동했다는 것이 더욱 더 자랑스러운 경험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표라는 직책을 통해, 코로나에 잠시 주춤할 수밖에 없었던 ALSA를 재활성화시키고 또 다른 성장의 길로 이끌 것을 약속합니다. 대표가 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공약들과 함께,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대표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모든 ALSA Korea 회원 분들에 대한 존경심을 담아 대표에 출마합니다.